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달 가동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선별시설·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갖춰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생활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오는 11월 1일부터 가동된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가동되면 각종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거주환경도 더욱 쾌적해지고, 폐기물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최근 완공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준공검사 결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선별시설,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이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3개 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공인시험결과가 이달 말 통보될 예정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는 모든 시설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일원에 총 4만4160㎡ 규모로 조성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등을 갖춘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어졌다. 또, 총 4개 시설 중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은 송천동 하수처리장 내에 조성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 소화공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이용해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소화공정을 거친 슬러지(침전물)는 퇴비로 생산하는 시설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루 최대 3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시설에서는 매일 60톤의 혼합재활용품들을 선별·처리하고, 플라스틱류와 유리병, 캔 등을 재활용품을 분리해 처리하게 된다.

생활폐기물 중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침전물인 하수슬러지는 송천동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에서 1차 농축·소화공정을 거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서 소각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화가스는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에서는 하루 최대 250톤의 하수슬러지를 150톤까지 감량할 수 있고, 리싸이클링타운 내 자원화시설에서는 하루 최대 150톤의 소화슬러지 소각처리가 가능해 하루 250톤의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악취방지시설인 악취제거탑의 탈취 설계 풍량을 3300㎡/분으로 성능을 개선해 악취저감 효율을 높였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BTO(수익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완공 후 시설물은 전주시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민간 사업행자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는 운영개시 후 20년간 시설관리운영 권리가 인정된다. 총 사업비는 국비 375억 8500만원과 민간투자비 724억8900만원 등 1100억7400만원이 투입됐으며, 시는 사업 정산완료 후 총투자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우종상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완공돼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지방정치제도개편안, 전문가 초청강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방안 모색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정치제도개편연구회(회장 이병하 의원)는 27일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연구회 회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관계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도시 연구센터 대표 박용남 소장을 초청해 지속가능 도시 구현을 위한 전주시 미래전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연회에서는 ▲생태도시 모델인 꾸러미바의 도시교통 시스템 및 도시 재생 사례 ▲자동차 없는 도시의 삶의 변화 과정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한 이상적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행복도시 운동의 산실 보고타의 사례 ▲연대경제의 기동인 포탈레지의 파우마스 공동체은행 사례 등을 통해 전주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창조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병하 회장은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시 만들기 사례를 통해 전주시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지속적인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한옥마을에 흥을 더할 어르신 취타대가 뜬다

시, 청춘 취타대 발대식 가져 취타대 소개·행진 순 진행

전주한옥마을의 명물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어르신 포도대에 이어 '한옥마을 청춘 취타대'가 한옥마을에 흥을 더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전주시와 금안노인복지관(관장 서양열), 삼천문화의집(관장 최기춘)은 27일 전주향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서양열 금안노인복지관장, 최기춘 삼천문화의집 관장 및 청춘 취타대 참여자 30명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옥마을 청춘 취타대'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시 '한옥마을 청춘 취타대' 발대식에서 청춘 취타대의 행진이 거행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한옥마을 청춘취타대 참여 어르신에 대한 휘장수여와 취타대 소개, 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한옥마을 청춘취타대는 금안노인복지관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의 '2016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어르신문화일자리 분야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어르신취타대에는 지난 3월 금안노인복지관과 삼천문화의집에서 선발하고 7개월간의 주 2회 교육과정을 거쳐 육성된 30여명이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청춘취타대는 출범 첫해인 올해는 전주 비빔밥축제와 태조어진 봉안행렬 등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거나 초청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는 청춘취타대를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해 한옥마을 정기공연 등을 추진하는 상설화시켜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이자 전주의 대표적인 고품격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최기춘 삼천문화의집 관장은 이날

"2016년 비빔밥축제, 태조어진봉안행렬, 전북문화원연합회 행사 참가 등으로 전주를 대표하는 어르신 문화일자리 사업으로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양열 금안노인복지관장도 "전주한옥마을 상설공연 확대를 통해 어르신 문화일자리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와 금안노인복지관은

지내년부터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를 운영, 50명의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만의 특색을 살린 어르신들과 문화, 일자리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최찬욱 시의원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 범죄피해자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및 실시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조(救助)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찬욱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노인복지병원, 국가유공자 요양병원 재지정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국가유공자 위탁 요양병원으로 재지정 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 전주보훈지청과 광주보훈병원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립병원으로서 인정받아 국가보훈대상자 요양병원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향후 2년간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환자,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 등 보훈대상자는 전문 간호간병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영재 기자

파득 광부·간호사 전주 방문

이역만리 타국에서 조국 근대화를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렸던 파득 광부 및 간호사 120명이 전주시를 방문해 전통문화 및 근대문화를 탐방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파득광부와 간호사 등 120여명은 이날 전주를 찾아 예수병원 의학박물관과 선교교역 등 전주의 근대역사문화를 탐방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지 등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시는 전주를 찾은 120명의 파득 광부 및 간호사에게 환영오찬을 제공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